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발걸음



김 상 균 한강유역환경청장
☎ 031-790-2403 ksg4312@me.go.kr

〈 필자약력 〉

-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79)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과 석사('84)
- 철도청 고속철도건설사업소장('00)
- 철도청 시설본부장('03)
- 철도청 건설본부장('03)
- 건설교통부 철도국장('04)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인재개발원장('05)
-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06)
- 現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장('07)

지속가능발전의 개념도입

1992년의 리우선언은 지난 세기에 우리가 추구하였던 물질만능적 사고를 반성하게하고 현세대와 다음세대의 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우리 지구촌공동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제시해준 역사적 메시지였다.

리우선언에서 'sustainable development' 라는 통합적 목표가 제시됨으로써 '환경보호가 우선이나, 경제발전이 우선이나' 는 문제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보완의 문제라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과거 우리는 경제성장위주로 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 도로건설 등에 역점을 두면서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토지의 무계획적인 난개발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개발은 환경오염, 삶의 질 악화 등으로 더 이상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으며 자연환경의 훼손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을 통합한 지속가능한 개발모형을 정립하고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과 경제 그리고 사회의 균형발전을 모두 고려하는 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

• 환경부와 건교부의 인사교류

그 일환으로 환경부의 한강유역환경청과와 건설교통부 서울국토관리청 간의 인사교류가 있었다. 그 결과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수도권 개발과 경제성장의 주역이었던 나는 지금 2천5백만 수도권 인구의 식수원인 팔당 호와의 물환경관리 추진 역량 강화와 생태건강성 증진, 유해물질관리 및 오염감시 기능 활성화 등 '물고기가 뛰어놀고 아이들이 먹감을 수 있는 물환경 조성'에 대한 고민과 노력을 하게 되었다.

• 환경부와 건교부의 정책적 협력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상수원수의 90%이상을 강이나 호수의 지표수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고 또 지키는 일이 지난 30년간의 가장 중요한 정부정책의 대상 중 하나였다. 80년 이후 수질개선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아직 우리가 바라는 만큼의 수질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지난 30년간 환경예산의 50%이상이 하수처리장 건설 예산 이었다. 수질오염정책이 획기적으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중장기계획에 따라 대규모의 체계적인 하수처리 인프라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시개발계

획 입안 시 환경보전이 철저하게 고려된 계획이 선행되는 것이다. 사후관리와 규제에 급급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사전계획을 통한 예방적 정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더욱 중요하다. 그런 일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간의 긴밀한 의사소통 체계와 협력이 필수불가결하다.

- 환경보전과 국토개발기관 간의 정책협의회 구성 및 역할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매우 폭넓고도 탄력적인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경험하고 지역적 상황 속에서 구체화하는 것이다.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 일하면서 이런 필요성을 더욱 체감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수도권 환경보전과 조화로운 국토발전을 위한 환경청·국토관리청 간의 긴밀한 정책연계 및 협조 체계구축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정책협의회에서는 자연친화적 도로건설사업, 하천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과 한강수계 수변구역 내 토지매수 및 하천점용허가에 관한 사항, 수질·수량관리 등 하천관계 자료수집 및 조사에 관한 사항, 도로건설·하천정비 등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협의와 관련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한 공식채널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간 정책협의회에서는 야생동물 생태통로 문제점 개선을 위한 생태통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하

였으며, 공사업체의 부담 최소화를 위한 건설공사현장 합동점검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치수와 수질을 함께 고려한 자연친화적 유역종합정비계획 수립과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하천부지 내 점용허가에 대한 업무협조 및 한강하구 장항습지에 대한 연구용역 역할 분담에 대한 업무협약이 진행 중에 있다. 향후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및 연구결과를 교류를 통해 정책수행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의를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은 생명의 원천이며,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자산

환경은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의 보금자리이며 생명의 원천이다.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환경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정책을 추진하고 기업은 환경보전이 기업의 이익과 경쟁력의 원천이 됨을 인식하여 녹색생산-환경경영체계 정착에 노력해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은 지속가능한 사회구축을 위해 친환경적 행동양식으로 전환해야 할 때이다.

21세기의 청사진인 'Agenda 21'의 수행! 경제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는 그 이상적인 목표를 향한 하나의 긴 여정 속으로 한강유역환경청과 서울국도관리청의 정책협의회가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우리의 작은 시도가 다른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그리고 기업과 시민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를 기대하며 또한 내 아이의 미래에 긍정적인 결과로 작용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